

4·3소설의 전개 양상*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4·3소설 반세기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 1) 피상적 접근 단계
 - 2)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
 - 3) 다양화·종합화 단계
3. 맺음말

1. 머리말

제주의 '4·3'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까지 문학(특히 소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승만 정권 이래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4·3의 금기를 깨뜨리는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문학이었음은 익히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학은 역사나 기록 등과 대비해 본다면 일종의 상징적 체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4·3에 대한 접근이 문학 차원에서는 상황의 한계 속에서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현실로 드러났다. 현기영과 이산하 등이 4·3을 문학화했다는 이유로 인해 '필화사건'을 일

* 이 글은 1998년 4월 4일 '제50주년 제주4·3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4·3문학제'의 문학세미나에서 「4·3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다시 쓴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현기영은 소설집 『순이(順伊) 삼촌』을 낸 사실로 인해 두 차례나 끌려가 고문당했으며(그 이야기는 그의 단편 「위기의 사내」(1988)에 그려져 있음), 이산하는 장편서사시 「한라산」(1986)을 발표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오키는 가운데 4·3의 문학화 작업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착실히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학문 분야나 저널리즘 차원의 접근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나 언론계를 자극하여 그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4·3을 형상화하고 그것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문학의 노력이 그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소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로 사적(史的)인 면에서 전개 양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해 둔다. 아울러 필자는 '4·3소설'을 '직접적으로 제주4·3을 주된 소재로 다룬 소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것은 전사(前史)를 다뤘다는 작품 등은 제외한다는 의미이고, '주된'이라는 말은 긴 이야기 가운데 삽화(插話) 형식으로 4·3 관련 내용이 끼어든 것은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²⁾

그러면 4·3소설이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그것은 각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주요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적 정리를 위주로 하는 이런 작업은 앞으로의 4·3소설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4·3소설 반세기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4·3소설'의 전개는 어떤 계기나 기점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계기나 기점이 되는 것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 발표'와 '6월항쟁'이다. 즉, 4·3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를 그 첫 번째 단계, 「순이 삼촌」이 발표된 시기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그 두 번째 단계, 6월항쟁 이후 현재까지를 그 세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첫 번째 단계를 '피상적 접근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다양화·종합화 단계'로 각각 명명코자 한다.

2) 다만 초창기 작품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삽화로 4·3을 다룬 소설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부록〉의 관련 작품 목록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편에서 4·3 관련 삽화가 나타난 경우는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4·3소설의 전개 양상

1) 피상적 접근 단계

4·3이 소설에서 거론된 것은 꽤나 오래 전의 일이다. 4·3 발발 2년이 채 안 된 시점, 그러니까 4·3 토벌이 진행중이던 1950년 2월, 허윤석의 「해녀(海女)」라는 소설이 4·3을 소재로 씌어졌다. 그 10년 후 1960년 오영수가 「후일담(後日譚)」에서, 다시 10년이 지나 1969년에 곽학송이 「집행인(執行人)」에서 4·3을 소재로 다뤘다. 황순원의 「비바리」(1956)에서도 4·3과 관련된 내용³⁾이 삽화(插話)로 끼어 있다.

이렇게 보면 4·3을 소재로 한 소설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셈이다. 사태의 진상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한본토(韓本土=육지부)의 작가들에 의해 4·3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시기부터 간헐적으로 소설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소설에 나오는 4·3은 별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대부분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피상적 취재에 근거하여 소재주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들은 공히 토벌대 또는 외지인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4·3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들의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허윤석의 「해녀」는 4·3 당시 토벌군으로 제주도에 상륙한 '김 중령'의 해골부대가 토벌작전 중 겪는 일련의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분이'와 '유모' 등 제주여성의 원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소설에서는 4·3의 지도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반도'들이 삼성혈에서 제사를 지내는 다음의 장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두령은 서슴지 않고 사내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어밀었다. 손길을 잡고 마주 웃는 사내들은 고, 부, 양 삼성과, 읍 대표자들이라고들 했다.(……) 모두 머리가 쭈세미같이 되고 얼굴이 거칠어진 것으로 보아 고 두령 못지 않게 죽창을 곧잘 쓰는 산사람들일 게라고 짐작이 갔을 때는, 고 두령은 벌써 삼성혈 앞쪽으로 저만침 걸어 가고 있었다. (……) 읍 대표가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가 제단 위에 죽창을 올리었다.

- 3) '비바리'가 4·3 때 입산한 빨치산 오빠를 장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위에서는 그 오빠가 자식들 달린 울케를 죽게 하고 집안 꼴을 그르쳐놓음에 따라 다른 가족마저 그렇게 될까봐 죽였을 것이라 여기지만, '비바리'는 병들어 운신도 어려운 오빠를 제주도 땅에 묻히게 하려고 쏘아 죽였다고 고백한다.
- 4) 叛徒. 4·3 때 입산(入山)한 빨치산인 재산무장대(在山武裝隊)를 「해녀」에서는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

고 두령은 서슴지 않고 푸른 칼을 들어 단을 끊고, 죽창 한 대를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창을 제물(말과 소) 위에 한 개씩 꽂아 놓는 것이었다. 뒤이어 세 대표도 창대를 니억니억 꽂고나서, 그 다음은 제문을 읽기 시작했다.

고 두령은 우렁차게 목청을 돋구어 남로당의 지령대로 북한 인민군이 개성, 서울을 거쳐 이미 여수까지 점령했다는 것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한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기세 좋은 지령서를 읽고나서 '죽창 십만 개, 죽통 오만 개, 구구식 총 삼백 정, 탄환 이십 상자, 철창 십만' 이렇게 무기 목록을 단숨에 내리 읽었다.(……)⁵⁾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 10월 20일 발발한 여순사건을 전후한 시기다. 위의 '고 두령'과 '고. 부. 양 삼성과, 읍대표자들'은 봉기 지도부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남로당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인민군이 개성과 서울을 거쳐 여수까지 점령함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 도망갔다는 지령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봉기 지도부들과 남로당과의 관련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지령서 내용에 대해 지도부들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우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4·3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

오영수의 「후일담」에서도 토벌대의 체험담 형식으로 4·3 관련 이야기가 전개된다. '박 중위'가 중사 시절 토벌대의 일원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빨치산 앞잡이로 볼렸던 한 여인을 살려주었는데, 얼마간 박 중위가 외지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그녀를 수소문해 보니 그녀는 한국전쟁시의 예비검속에 걸려들어 수장(水葬)당했더라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의 4·3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여수·순천 사건에 뒤이어 제주도 반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따지고 보면 사상적 이념—이런 것보다는 경찰의 지나친 신경과민(물론 여수·순천 사건의 전철을 미연 방지하는 처사이기도 했겠지만)에 민간의 반목을 좌의 푸락치들이 이용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는지도 몰랐다.⁶⁾

여순사건이 일어난 때는 1948년 10월 20일이니, 4·3의 발발보다 6개월이나 늦은 시점이다. 여순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무장대 공세기'가 지나고 '경비대 주도 토벌

5) 허윤석, 「해녀」, 『문예』 1950년 2월호, 14~15쪽.

6) 오영수, 「후일담」, 『현대문학』 1960년 6월호, 126쪽.

4·3소설의 전개 양상

기'를 거쳐 '사태의 유형기'로 접어들려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4·3 토벌에 투입될 예정이던 군인들이 반기를 든 것이 여순사건이 아니던가. 이처럼 오영수는 그 발발 시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4·3과 관련된 작품을 썼던 것이다. 다만 사상이나 이념에 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지나친 신경과민에 의한 민간의 반목을 좌익측에서 이용한 사건이라고 파악한 점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곽학송의 경우 당시 4·3 토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⁸⁾ 작품을 썼다. 그것은 「집행인」이 도민들의 입장보다는 토벌대의 고층이나 번민, 고뇌 등에 더 무게가 실린 작품이 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이 작품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토벌대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일부 엿보이기도 하는데, 무장대와 내통한 자를 아무런 절차 없이 죽이는 행위라든가, 소개작전에 응하지 않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곽학송은 「사(死)의 삼각관계(三角關係)」(1985)에서도 4·3 체험을 소설화하는데, 거기에 드러난 그의 시각은 기존의 관변측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다.⁹⁾

허윤석·오영수·곽학송 등 외지인 작가들의 작품이 4·3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경직된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작가들이 피해

-
- 7) 제민일보 4·3 취재반은 「4·3은 말한다 1」(전예원, 1994)의 8~12쪽에서 4·3의 시기를 4·3 이전 2기, 4·3 이후 8기 등 모두 10기로 구분했다. 그 각각의 시기는 ①인민위원회 주도기(1945. 8. 15.~1947. 2. 28.), ②미군정 공세기(1947. 3. 1.~1948. 4. 2.), ③무장대 공세기(1948. 4. 4.~5. 11.), ④경비대 주도 토벌기(1948. 5. 12.~10. 19), ⑤사태의 유형기(1948. 10. 20.~12. 31.), ⑥육·해·공 합동 토벌기(1949. 1. 1.~3. 1.), ⑦선무활동기(1949. 3. 2.~5. 15.), ⑧소강상태기(1949. 5. 16.~1950. 6. 24.), ⑨대대적 예비검속기(1950. 6. 25.~10. 9.) ⑩마지막 토벌기(1950. 10. 10.~1954. 9. 21.) 등이다.
 - 8) 곽학송은 자신의 4·3 토벌 참가 경험에 대해 『노동적위대』(백민사, 1970) 13쪽(서언)에서 “나는 짧은 기간의 청년단체 가담을 거쳐 제주도 공비토벌 그리고 6·25참전으로 20대를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 9) 「사의 삼각관계」에는 4·3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평양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의 공산당원들은 10여 군데의 경찰지서를 동시에 습격, 죽창과 철창으로 검은 개(경찰을 그렇게 불렀다)들을 죽이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무기만 거두어가지고 한라산 깊은 곳으로 잠적해 버렸다. 토박이 출신의 사병들이 입산하며 가져간 총기를 합쳐서 겨우 2백여 명의 무장폭도가 1년여 동안 이 나라 제일 큰 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이다. 평양측에서는 인민항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진상은 아주 간단했다. 보급이 없는 무장폭도들은 주민들 소유의 곡식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고 더러는 자진 헌납하는 주민도 있었으니, 공비와 연루되는 주민의 수효가 초기에는 적지 않았으니 제주도의 겁데기만 활고 간 외신 기자들은 주민들의 저항사건으

당사자인 제주인의 입장에 서지 못했던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설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거의 외지에서 온 토벌대의 일원이라는 것이 말해주듯, 그 작품들의 관심은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지도 않았다. 단지 전해들었거나 체험한 적이 있는 특이한 사건을 소설화하는 데에 의미를 가졌던 정도가 아니었나 싶다.

70년대 들어 오성찬의 「하얀 달빛」(1971)·「잃어버린 고향(故郷)」(1976)과 현기영의 「아버지」(1975) 등 제주도출신 작가들에 의해서 4·3을 소설화한 작품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삽화나 배경적인 요소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이었다. 이 두 작가는 모두 소년기에 4·3을 체험했는데, 「하얀 달빛」과 「아버지」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소년의 입장에서 보는 4·3의 공포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하얀 달빛」은 무장대에 협조 도장 찍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그려져 있다. 4·3 때 일본으로 밀항한 '중식'이 26년만에 귀향하여 야박한 고향의 인심을 느낀다는 「잃어버린 고향」에서는 '4·3사건'이란 표현이 한 번 나오기는 하나 '좌익계렬라들이 일으킨 공포의 사건' 정도로 묘사했고, 그나마 작품의 주된 소재로 다루진 것도 아니었다. 작가의 고향인 노형의 함박이굴을 배경으로 한 「아버지」는 '폭도'로 입산한 아버지를 둔 소년의 의식세계를 심미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아버지」는 「하얀 달빛」과 마찬가지로 '4·3'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4·3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다.

제주출신 작가들의 70년대 중반까지의 몇 작품에서 4·3을 피상적으로 접근한 것은 외지인 작가들의 경우와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4·3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로서는 4·3이 선불리 다룰 수 없는 소재였다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는 것이다. 경직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70년대 중반까지 4·3은 소설 속에 전면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나마 4·3을 언급한 작품들마저도 작가의 입장이나 사회상황의 문제 등 내·

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거기에는 정부의 일차 계획인 제주도 출신으로 편성된 9연대와 여수(麗水) 주둔 연대와 교체하려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세계여론은 마치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는 양 떠들어댔다. 정부당국에서는 즉각 여순지방 치안확보에 나서는 한편, 제주도 9연대와 대전 2연대를 교체하는 군작전명령을 내렸다. 정세에 따라 9연대 사병 중에는 무장한 채 입산하는 자가 속출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현대문학』 1985년 9월호 61쪽.)

4·3소설의 전개 양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한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는 4·3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의미에서 '피상적 접근 단계'(제1기)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

정치권력에 의해 조작된 4·3에 대한 금기의 벽은 1978년의 「순이 삼촌」 발표를 계기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을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제2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의 4·3소설을 이끌어간 작가는 제주도 출신의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3인이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억울한 양민 학살을 문제삼음으로써 잊혀지기를 강요당해왔던 4·3의 비극적 역사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작품이다. 전국의 많은 독자들이 제주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음을 「순이 삼촌」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제주의 문학이 향토문학, 풍물문학, 관광문학의 차원이었는데, 말하자면 민족사의 한 중요한 중앙지대로서의 제주도가 안고 있는 민족사적인 과제를 「순이 삼촌」이 건져 올린 것”¹⁰⁾이란 평가를 받을 만큼 문학사적인 의의도 크다. 북촌리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4·3을 소설화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도 민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 당당히 증언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아니우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앞으로 일이 십년만 더 있어 봅서. 그땐 심판받을 당사자도 죽고 없고, 아버님이나 당숙님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민 다 허사가 아니우파? 마을 전설로는 남을지 몰라도.”¹¹⁾

이처럼 '길수형'의 발언으로 대신된 진상규명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현기영의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해룡(海龍)이야기」(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길」(1981), 「잃어버린 시절」(1983), 「아스팔트」(1984) 등은 선량한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는 작품들이다.

80년대 들어 현길언이 「귀향(歸鄕)」(1982), 「우리들의 조부(祖父)님」(1982), 「지나

10) 박태순 외 3인, 「민중·노동소설의 현황과 성찰」(좌담), 『오늘의 소설』5(현암사, 1990), 16쪽.

11)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1978년 가을호, 287쪽.

가는 바람에」(1984), 「먼 훗날」(1984), 「신열(身熱)」(1984), 「우리들의 어머니」(1985), 「핑 울음 소리」(1985), 「불과 재」(1985), 「깍질과 속살」(1986), 「미명(未明)」(1987) 등에서 4·3을 소설로 형상화한다. 현길언의 작품들은 4·3의 비극적 상황을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폭력과의 관계라는 해방직후 주변부의 문제를 통해 조명해내고 있다.

「우리들의 조부님」은 한 노인을 중심으로 그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제주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80대 중반의 '희빈'의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4·3 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들의 사연을 밝히고자 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빙의(憑依)'라는 독특한 현상을 소재로 삼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4·3으로 인한 제주인의 한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쳐 있으며, 해한(解恨)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내가 사람들을 비집고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을 때 뭐라고 말할 듯 입을 달싹이다가 푹 쓰러져 버렸다. 사람들이 약간 웅성거렸고 종조부가 달려나와 <성님, 성님> 소리를 몇 번 하였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옮겨진 후 곧 숨을 거뒀다.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움직이며 종조부의 지시에 따라 장례 준비를 했다. 그 정도 노망을 하고서 돌아가신 게 천만다행이란 얘기가 친족들과 일꾼들 사이에 오갔다. 누구도 아버지 죽음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꼭 약속한 일 같았다.¹²⁾

아들(희빈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신원(伸冤)하고자 했던 할아버지의 의도와는 달리, 약속한 일처럼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4·3을 금기시하는 사회적·정치적 분위기가 억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도, 그것마저 그럴 수 없었다. 한의 맺힘에서 풀림까지의 거리는 그만큼 멀고 어두웠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는가. 그것은 아니다. 작가는 이 작품의 끝 부분인 위의 인용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약속한 일처럼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 그것이다.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문제임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¹³⁾

12) 현길언, 「우리들의 조부님」, 『문예중앙』 1982년 가을호, 210쪽.

4·3소설의 전개 양상

오성찬은 여러 작품에서 4·3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긴 이야기 속의 삽화 또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한 부분으로 축소시켜 다루¹³⁾”는 경향이 있다. 그는 80년대 들어 「사포(沙浦)에서」(1982), 「풀무에 관한 보고」(1984), 「공동묘지에서」(1984), 「크는 산」(1984), 「단추와 허리띠」(1986), 「표해(漂海)」(1986), 「덧에 치인 세월」(1986) 등에서 4·3을 소설화했다.

「단추와 허리띠」의 공간적 배경인 ‘풍덕리’는 아마도 조천읍 함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에도 서술되듯이 작가의 마을시리즈 취재 과정의 일을 소설화한 것이다. ‘조창용’을 비롯한 ‘공비’¹⁴⁾가 토벌대 일원인 ‘김제수’를 ‘거멸창’ 굴에 떨어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을시리즈 간행차 취재하던 이들에 의해 그 유골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4·3으로 인한 갖가지 사연이 제주 땅 곳곳에 묻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바메기요름 옆에 가매장을 했다가 보훈지청으로부터 태극기를 받고 성손, 외손들에게 다 통보를 해서 가족공동묘지에 묻히기까지엔 꼭 보름이 걸렸다. 그날 장례식엔 골 상뚝군이 다 털려나왔지만 조창용 씨도 나와서 잔디를 덮었다. 그가 무덤에 잔디를 덮고 맨손으로 꼭꼭 누르는 걸 먼 발치에서 보다가 수연 씨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왔다. 상뚝군들 중에는 그를 욕하고 헐뜯음을 했지만 그는 시종 귀가 먹은 듯 그들의 말에 상관하지 않았다.¹⁵⁾

인용된 내용은 소설의 뒷부분이다. 토벌대인 ‘김제수’를 죽게 했던 ‘조창용’이 무덤에 잔디를 덮고 맨손으로 꼭꼭 누르는 장면을 김제수 아들 ‘김수연’이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서 그런 불행한 일

13) 김동윤, 「맷힘에서 풀립까지, 그 멀고 어두운 거리」, 『섬의 문학』제2호(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7), 161~179쪽.

14) 김영화, 「4·3의 파편들」, 『분단상황과 문학』(국학자료원, 1992), 129쪽.

15) 「단추와 허리띠」에는 ‘공비’나 ‘폭도’나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까지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비’·‘폭도’·‘반도’ 등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 입산자(入山者)라는 의미에서 ‘산사람’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다.

16) 오성찬, 「마을 이야기 2—단추와 고삐허리띠」, 『한국문학』 1986년 7월호, 181쪽. 이 작품은 소설집 『단추와 허리띠』(성지문화사, 1988)로 묶을 때 「단추와 허리띠」로 개제(改題)했다.

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냉정한 모색이 없이 선부른 화해와 용서의 몸짓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고시홍의 「도마칼」(1985)과 한립화의 「불턱」(1987)도 4·3을 다룬 작품이다. 「도마칼」에서는 4·3의 복새통에 잠시 '폭도'에 연루됐던 아버지가 소나무에 매인 시체로 발견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과거의 충격적인 망령으로 인해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켜 도마칼을 들고 해매는 현실이 그려져 있다. 「불턱」은 제주도의 고통스런 역사 속에서 살아온 제주여인들의 억척스런 삶을 '순택이 어멍'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서술한 소설로서, 그 한 부분에 4·3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홍과 한립화의 경우 4·3을 본격적으로 작품화한 것은 6월항쟁 이후에 이르러서다.

결국,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는 「순이 삼촌」을 기점으로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세 작가가 중심이 되어 그 동안 금기 시되었던 4·3에 대해, 특히 4·3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심스럽게나마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시기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조심스러웠음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4·3의 진상을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특히 가장 민감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한 접근보다는 제주민중의 피해 양상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같이 「드러내기」를 지향하는 경향은 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즉, 이 시기의 4·3소설은 고발문학·증언문학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것이다.

3) 다양화·종합화 단계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세 작가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4·3소설은 1980년대 후반에 비교적 '여러 겹'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987년의 6월항쟁을 그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는 6월항쟁 이후 4·3에 관련된 연구소, 논문, 증언집, 자료집, 신문연재물 등이 속출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¹⁷⁾

6월항쟁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문학전반에도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¹⁸⁾ 4·3소설도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희되면서 새로운 모색을 보여주었다. 재일작가 김석범의 일본어 소설 「간수 박서방」·「까마귀의 죽음」·「관덕정」과 장편

4·3소설의 전개 양상

『화산도』가 1988년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고, 1986년 평양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북한소설로 알려진 김일우의 장편 『섬사람들』도 1988년에 출판되었으며, 현기영·현길연·오성찬뿐만 아니라 고시홍·김관후·김석희·오경훈·정순희·한림화 등이 4·3소설을 발표했다. 비록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4·3소설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됨과 아울러 관점도 다중성(多重性)을 띠기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화산도』 등 김석범의 소설은 비교적 이데올로기의 논의가 자유로운 일본에서 4·3을 체험하고 건너간 지도부들의 증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점과 유격대 봉기문 같은 역사적 자료 소개가 많은 점, 일본에서의 캄파 투쟁 등 표현의 자유로움을 누린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섬사람들』의 소개도 북한에서의 4·3을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각과 논의의 '다양화', '다중화(多重化)'에 기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들 작품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반미(反美)·반제(反帝)적

-
- 17) 6월항쟁 이후, 4·3과 관련된 증언집으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 소리』(소나무, 1988)와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했수다』I,II(한울, 1989) 등이 나왔으며, 자료집으로 노민영(약음)의 『잠들지 않는 남도』(은누리, 1988)와 아라리연구원(약음)의 『제주민중항쟁』I,II,III(소나무, 1988~89) 등이 출간되었고, 신문연재물로는 「4·3의 증언」(제주신문, 1989년 4월 3일~12월 5일(연재 중단))과 「4·3은 말한다」(재민일보, 1990년 6월 2일~현재 연재중) 등이 있다. 아울러 고창훈의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1989), 박명림의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1988), 양한권의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1988) 등 관련 학술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제주4·3연구소'가 설립돼 1989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18) 홍정선은 「6월항쟁 이후의 현실과 소설」에서 "6월항쟁 이후의 소설들은 (...)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면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섬세한 의식과 내면을 거기에 상응하는 언어의 체계로 구축해냈고, 노동자들의 밝고 강인한 모습을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그려냈으며, 그릇된 역사와 정치에 대한 반성을 강도있게 계속" (『문학과 사회』, 1989년 가을호, 877쪽.)했다고 논했다. 박철회는 6월항쟁을 고비로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이 그 이전에 비하여 대담한 변혁이 이루어졌다면 "가령 민족문학론이나 통일문학론 등에 반영된 이념적이고 급진적인 쟁점이 보여주듯이 제도권 문학의 수세와 운동권 문학의 부상과 같은 예는 문학적 충격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문학, 교포문학 그리고 이념관계서적이 수정과 삭제 없이 그대로 출판되고, 소재의 확대나 장르의 확산, 해체, 동요 등은 관습적으로 인식해 온 문학의 기존 관념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 (『한국문학과 개방성』, 『현대문학』 1989년 12월호, 87쪽.)이라 했으며, 박덕규는 6월항쟁을 전후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88년 들어 더욱 가열된 문학현상의 주된 부분을 장르별로 ① 평단에서의 민족문학논쟁의 부각, ② 시에서의 양태적 확산, 즉 탈장르화 심화, ③ 소설에서의 금기시 소재소설의 양산, ④ 기록문학에서의 문학성 확보에 따른 장르 확산과 논의의 대두 등으로 파악했다 (『한국문학의 보편적 지향을 향하여』, 『문학사상』 1988년 12월호, 56쪽.).

시각을 보여줬던 것이다.

6월항쟁 이후 새로이 4·3소설을 발표한 작가는 김석희·오경훈·정순희·김관후 등이다.

김석희의 「땅울림」(1988)은 지방일간지 기자인 '김종민'이 '현용직'이라는 한 인물을 취재해 놓은 것을 화자(話者)인 '나'가 다시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작품이다. 현용직은 4·3 때 산으로 피해 들어갔다가 사태가 끝났음을 모른 채 보복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36년간 굴 속에 숨어살다가 우연히 발견된 사람이었는데, 현용직의 무리들은 4·3 당시에 '탐라공화국'을 꿈꾸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제주인의 독립주의 사상을 작품기저에 깔면서 '제주도적 순수성'을 부각시킨 독특한 소설이다. 「고여있는 불」(1989)은 제주출신의 한 작가가 잡지사의 요청으로 '너븐드르 마을'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마을제(마을 주민들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뒤 수장당한 곳인 '비룡못'에서 열리는 '비룡못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4·3으로 인한 비극의 응어리를 재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오경훈은 「당신의 작은 촛불」(1988), 「세월은 가고」(1989) 「호랑가시나무 추억」(1992) 등에서 민중수난과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차분히 4·3을 다루고 있다. 「당신의 작은 촛불」은 4·3 당시 서북청년단이었던 아버지와 제주여인 사이에 태어나 버려지 다시피 자라난 '근식'을 통해 4·3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세월은 가고」에서는 '해선'이라는 여인의 수난사 한 부분에 4·3이 자리잡고 있음을 형상화했으며, 「호랑가시나무 추억」은 4·3 당시 경찰이었던 '기하'의 내동댕이쳐진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정순희는 『가지치기』(책나라, 1992)에 수록된 「비올롱의 눈물」에서 아버지가 4·3 때 입산했다가 토벌대에 피살된 이후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마을 외곽으로 쫓겨나 살다 죽은 '비올롱'이라는 인물의 한 많은 삶을 그렸다.

김관후는 「저 섬에 불던 바람」(1995)을 통해 4·3과 관련된 미국의 횡포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반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섬에서 띄우는 편지」(1998)는 4·3 때 총살 현장에서 빠져나와 대구·부산·마산 등 형무소를 전전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어떤 섬에 정착하여 새장가를 들어 지내다가 임종을 앞두고 50년 만에 제주의 본처에게 아들이 보고 싶다며 편지형식으로 과거를 술회하는 작품이다.

19) 원제는 「남도(南島)의 여인」이었는데, 작품집 『유배지(流配地)』(신아문화사, 1993)로 묶을 때 제목을 바꿨다.

4·3소설의 전개 양상

각각 「도마칼」과 「불턱」을 통해 이미 4·3을 작품화한 바 있는 고시홍과 한림화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전개해나간다.

고시홍은 4·3으로 인한 도민들의 상흔 형상화에 많은 비중을 두는 작가로 보인다. 「계명의 도시」(1989)에서 신문사의 '양 국장'이 4·3취재를 하려다가 결국 좌절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여전히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얼굴 없는 사람들」(1992)은 토벌대의 길 안내를 맡았던 '고복만'이 겪은 4·3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작은 모스크바」(1994)는 4·3으로 폐촌된 '원당마을' 출신들이 뿌리찾기 작업의 하나로 마을지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고민학' 노인이 4·3 당시의 일을 수기형식으로 회고하고 있는 작품이다. 「해야 솟아라」(1987), 「저승문」(1989), 「유령들의 친목회」(1989), 「자서전 고쳐 쓰기」(1991) 등에서도 제주민중의 수난사적 입장에서 4·3이 그려지고 있다.

한림화의 「배고리지」(1987)는 토속적인 전설과 4·3을 연결시켜 일지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라는 데 유다른 점이 있는데, 이 작품 속의 대부분의 장면들은 그의 장편 『한라산의 노을』에 부분적으로 변형되어 다시 나타난다.

앞 시기부터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던 현기영·현길연·오성찬 등 세 작가의 4·3형상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현길연은 남원읍 의귀리 사건을 다룬 「깊은 적막(寂寞)의 끝」(1989)에서 이덕구를 등장시키며 '인민유격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덕구로부터 임무를 받은 '오규민'의 유격대남동부지대가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한 토벌군을 습격하다 실패하고, 유격대의 습격을 물리친 토벌군은 공비와 내통했다고 하여 마을양민들을 총살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무혼(撫魂)굿」(1987), 「관광요정 백록원(白鹿園) 문영옥 마담 소전(小傳)」(1988), 「집 없는 혼(魂)」(1988), 「미로여행」(1988), 「어떤 비밀」(1990) 등에서 4·3의 작품화를 계속하던 현길연은 장편 『한라산』을 통해 그 총체적 형상화를 시도한다.

오성찬의 경우 80년대 후반 들어서 작품의 한 부분이 아닌 작품 전반을 통해 4·3을 다루려는 경향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4·3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1989)에서 살펴보면, 해방공간의 제주도에서 사회주의를 주도한 '주명구'에 대한 생애를 말하면서 단지 '매우 불행했다'는 정도로 말할 뿐 그의 이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념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인물을 묘사하면서도 실제 작품에서 이념

에 대한 언급은 추상적이다. 이덕구 산장을 답사하는 과정이 그려진 「겨울 산행」(1990)에서도 이덕구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는 대상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아닌 일시적인 답사나 취재에서 느끼는 점을 소설로 형상화하려는 데서 오는 한계일 수 있다. 「토산택(兎山宅)」(1987), 「이만행 소전(小傳)」(1988), 「나비로의 환생」(1988), 「한라구절초」(1988), 「바람의 늪」(1989), 「보춘화(報春花) 한 뿌리」(1989), 「표류(漂流)하는 세월」(1991)과 소설집 『푸른 보리밭』(새미, 1998)에 실린 「유년(幼年)의 부활」, 「기억의 다리」 등의 작품들이 6월항쟁 이후에 4·3을 다룬 오성찬의 소설들이다.

「순이 삼촌」으로 4·3소설의 새 장을 열었던 현기영의 경우 「아스팔트」(1984) 이후 한동안 4·3소설을 발표하지 않다가—장편 『바람 타는 섬』을 통해 그 전사(前史)를 다루기는 했음—90년대 들어 새로운 면모로 그 작업을 지속하여 주목을 받는다. 「거룩한 생애」(1991), 「목마른 신들」(1992), 「쇠와 살」(1992), 「마지막 테우리」(1994) 등은 그 새로운 모색의 산물이다. 이 소설들은 한동안 동어 반복(同語反覆)이 아니냐고 지적받던 4·3소설의 양상을 깨트렸다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크다. 「거룩한 생애」에서는 그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 작품보다 훨씬 넓은 서사공간을 확보하면서 문학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진전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⁰⁾ 「목마른 신들」은 곳 사설 같은 구조와 서술로서, 「쇠와 살」은 다큐멘터리식의 몽타주 기법과 같은 파격적 형식으로서 동어 반복의 식상함을 깬다.²¹⁾ 「마지막 테우리」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4·3 환기, 그리고 묻혀져선 안 되는 것들이 묻혀져 가는 상황에 대한 경고라는 현기영 소설의 종전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나아가 이러한 역사적 상상력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학적 상상력과 만나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역사적 상상력이 생태학적 상상력과 창조적으로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²²⁾

1990년대 들어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4·3소설의 장편화 경향은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그것은 4·3을 종합화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수십 편의 4·3소설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중요하

20) 이동하, 「역사적 진실의 복원—현기영론」, 『작가세계』 1998년 봄호, 55~56쪽.

21) 염무웅, 「역사의 진실과 소설가의 운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95), 160~169쪽.

22) 김동윤, 「역사적 상상력과 생태학적 상상력의 만남」, 『섬의 문학』제3호(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7), 216~230쪽.

4·3소설의 전개 양상

면서도 언급이 덜 되어온 부분들이 있었다. 봉기지도부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미국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 당시 제주민중의 생활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작품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장편화 양식이 하나의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김석범의 『화산도』가 일정정도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3을 장편화한 작품은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이다. 이 소설은 1947년 '3·1사건'에서부터 1949년 6월초 봉기 지도자인 이덕구가 죽는 시점까지를 일지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해주대회 참석차 섬을 빠져나간 김달삼에 비해 제주도에 남아 끝까지 싸우다 최후를 맞은 이덕구를 영웅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이덕구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리얼리티의 문제²³⁾라든가, 작중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생명력 있게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소설 전체가 긴장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등은 문제다. 이런 점들은 이 작품이 4·3을 최초로 장편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길언의 『여자의 강』(1992)도 4·3을 다룬 장편이다. 구좌면 김녕에서 무당의 딸로 태어난 '박명자'가 해방후 제주읍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신분 극복을 위해 공산주의자가 되며, 4·3과 6·25를 거치면서 치열한 열정으로 삶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그녀 주변의 남자가 모두 죽게 되는 비극적 운명의 올라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 소설의 흐름이다. 현대사와 결부된 제주여성의 운명적 삶을 잘 포착해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4·3 전후의 상황이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긴 하여도 4·3 문제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작품은 아니다.

현길언의 장편을 통한 4·3 탐구는 『한라산』(1995)²⁴⁾을 통해 나타난다. 『한라산』

23) 『한라산의 노을』에서는 이덕구를 일본군 대좌 출신이라고 했는데(상권 43쪽), 이는 사실성이 없다. 『발굴현대사인물』2(한겨레신문사, 1992)의 93~94쪽에 따르면, 그는 일본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學)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 화병으로 일본 육군에 입대했다가 8·15와 함께 소위로 제대했다. 대좌란 오늘날의 대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니, 입대 경력 2년의 한국인을 일본군 대좌로 설정한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필자는 이 문제를 「상상력, 혹은 그 이전의 문제」, 『섬의 문학』 창간호(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5), 171쪽에서 거론한 바 있다.

24) 단행본 1~3권(제1, 2부) 발간 시점. 이 작품은 1988년 4월부터 『민족지성』에 연재하던 중 만 3년 9개월만에 중단됐던 것을 1995년 작가가 수정·보완하여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냈다.

1~2부는 해방 직전의 상황부터 1947년의 3·1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미국의 움직임 등 4·3전사(前史)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지식인 사회주의자들, 일반 서민들, 어린 학생들, 민족주의 지식인들, 시골 유지와 농민들 등 여러 부류의 제주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 왔는가를 보이고 있다. 그 때의 여론 주도층인 교사 등 지식인층의 사상이나 활동상을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²⁵⁾ 아울러 작가의 고향인 산남(山南: 한라산 남쪽) 지역의 지식인들의 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고 4·3이 그려진다는 사실도 유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재산무장대와 진압군의 대결이 본격화되는 3부, 주도층의 탈출과 항전이 그려지는 4부, 사태의 상흔을 다루는 5부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이 작품의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경훈의 『날개의 꿈』(1997)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장편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특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4·3 발발 2개월 후인 1948년 6월부터 계엄군의 토벌작전이 절정에 이른 12월까지 7개월간 '고행림'이라는 젊은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면서 겪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봉기 지도자인 김달삼과 이덕구의 첨예한 갈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이 흥미를 끌며, 이덕구에 관한 평가에서 영웅적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고 김달삼과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은 매우 독특한 관점이 아닌가 한다. 다만 '고행림'이 입산하여 연락병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다소 개연성이 부족하며, 작가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마광'이라는 맹추종의 역할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외지경찰로 위장한 무장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설정하는 것도 좀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요컨대 제3기인 다양화·종합화 단계에서는 6월항쟁을 기점으로 제일 작가 김석범과 북한 작가 김일우의 반미·반제적 시각의 4·3소설들이 국내에서 출판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띤다.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3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4·3의 작품화에 고시홍과 한림화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뒤이어 김석희·오경훈·정순희·김관후 등도 가세하면서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90년대 들어 4·3을 형상화한 장편소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4·3을 종합적인 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도 이 시기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25) 김영화, 「서평—현길언 장편 『한라산』의 새로움」, 『제대신문』 1995년 5월 10일자.

3. 맺음말

이 글은 4·3 소설의 전개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으로, 4·3소설이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이며 그것이 각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4·3소설은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나오기 이전 시기를 '피상적 접근단계', 「순이 삼촌」 이후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를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 6월항쟁 이후를 '다양화·종합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피상적 접근 단계'에서는 4·3이 소설 속에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허윤석·오영수·곽학송 등 외지 출신 작가들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지 못한 점 때문에, 오성찬·현기영의 초기 몇 작품은 경직된 정치 상황 때문에 피상적으로 4·3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셋째,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에서는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세 작가가 중심이 되어 4·3의 와중에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4·3의 비극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켰다.

넷째, '다양화·종합화 단계'에서는 일본의 김석범과 북한의 김일우가 쓴 반미·반제적 시각의 4·3소설들이 국내에서 출판되는 가운데, 4·3의 형상화에 고시홍·한림화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김석희·오경훈·정순희·김관후 등도 가세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1990년대 들어 장편소설을 통해 4·3을 종합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제 4·3 50주년을 맞았다.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적지 않지만,²⁶⁾ 그래도 전과 비교한다면, 많은 금기가 풀렸으며, 상황도 변했다. 적어도 이제는 자료의 부실

26) 박찬식은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를 통해 4·3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로 ①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미공개 자료 소재의 추적, 공개 요구 등 학문외적 노력 필요, ② 증언 자료의 지속적 확보와 자료집 출간, 정리 분석, ③ 방법론의 모색, ④ 각 부문별 세부적 검토 필요, ⑤ 4·3이 제주사회에 미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을 들며 그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학, 세계와 미래로』(제주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8), 29~30쪽 참조.

이라든가 사회적 상황의 문제가 작품 창작에 저해되는 결정적인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역사소설의 소재로는 약 두 세대 전의 과거사라야 이상적”²⁷⁾이라는 테에도르 폰타네(Theoder Fontane)의 견해에 따르면, 4·3 50주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4·3을 작품화하는 데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건에서부터의 시간적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짐에 따라 그 객관성이 다소 확보된 시점이면서도, 둘째, 아직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도 점차 발굴·조사·정리되고 있는 상태여서 비교적 취재에 용이하며, 셋째, 그것이 ‘지금 이곳’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모두 동시에 만족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들의 자세와 의지다. 작가들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료의 섭렵과 적극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작품을 써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도 우회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정면에서 다룰 때가 되었다. 아직까지 “4·3소설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우익 등의 용어들만 빈번하게 등장했을 뿐 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예술적 만남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²⁸⁾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의 실상을 첨예하게 드러내면서도 관념적인 이념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할 때 비로소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작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민중의 생활사라든가 사회사·문화사 등 제주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홍명희의 『임격정』이 한 시대의 전체적인 생활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세밀한 묘사 등으로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되었음은 4·3소설의 창작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때문에 앞으로의 4·3소설에서 이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형상화되지 않는다면, 그 소설에서의 4·3은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로만 전락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작가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인다면, 지금은 변화된 독자들에게 대한 작가들의 대처도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영상물 등에 감염된 감각적인 오늘날의 젊은 독자들에게는 4·3 자체가 지나치게 심각하고 엄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에, 그것들에 영합해서는 안

27) Theoder Fontane, *Mathilde Möhring · Zur Literatur · Causerien*, Fontanes Nymphenburger Taschenbuch-Ausgabe Bd. 14(München: Nymphenburg, 1969), p.180. 강영주, 『한국역사소설의 재인식』(창작과비평사, 1991), 50쪽에서 재인용.

28) 김병택, 「4·3소설의 유형과 전개」, 『국문학보』제10집(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17쪽.

4·3소설의 전개 양상

되겠지만, 그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벼움'의 시대에 '무거운' 주제를 써나가는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독자가 없는 문학이야말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영주. 『한국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 고희범 외.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2. 한겨레신문사, 1992.
- 곽학송. 『노동적위대』. 백민사, 1990.
- 김동윤. 「상상력, 혹은 그 이전의 문제—제주소재 소설의 걸가지 읽기」. 『섬의 문학』 창간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5.
- . 「땀힘에서 풀림까지. 그 멀고 어두운 거리—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론」. 『섬의 문학』 제2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7.
- . 「역사적 상상력과 생태학적 상상력의 만남—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론」. 『섬의 문학』 제3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7.
- 김병택. 「4·3소설의 유형과 전개」. 『국문학보』 제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 김영화.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 . 「서평—한라산의 새로움」. 『제대신문』 1995년 5월 10일자.
- .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박덕규. 「한국문학의 보편적 지향을 향하여」. 『문학사상』 1988년 12월호.
- 박찬식.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제주학, 세계와 미래로』(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학회, 1998.
- 박철희. 「한국문학의 개방성」. 『현대문학』 1989년 12월호.
- 박태순 외 3인. 「민중·노동소설의 현황과 성찰」(좌담). 『오늘의 소설』 5. 현암사, 1990.
- 송상일. 『시대와 삶』. 문장, 1979.
- 염무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5.
-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 제주 4·3 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 현기영. 『짧은 대지를 위하여』. 청사, 1989.
- 현길언. 「문화적 관점에서 본 4·3 50주년—4·3에 대한 문학 예술적 대응」. 『4·3 반세기의 역사적 재조명』(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학회, 1998.
- 홍용희 외. 「현기영 특집—〈아버지〉에서 〈지상에 순가락 하나〉까지」. 『작가세계』 1998년 봄호.
- 홍정선. 「6월항쟁 이후의 현실과 소설」. 『문학과 사회』 1998년 가을호.

〈부록〉 4·3 관련 소설 목록

작 품	작 가	발표 시기	발 표 지	비 고
海女	허운석	1950. 2.	문예	
비바리	황순원	1956.10.	문학예술	
後日譚	오영수	1960. 6.	현대문학	
執行人	곽학송	1969.가을·겨울	창작과비평	「제주도」로 改題
하얀 달빛	오성찬	1971. 5.	제주도 제49호	
아버지	현기영	1975. 1.	동아일보	
잃어버린 故郷	오성찬	1975. 6.	현대문학	
順伊 삼촌	현기영	1978.가을	창작과비평	
海龍 이야기	현기영	1979.가을	문예중앙	
도령마루의 까마귀	현기영	1979.가을	문학과지성	
길	현기영	1981.여름	실천문학	
歸郷	현길언	1982. 1.	현대문학	
우리들의 祖父님	현길언	1982.가을	문예중앙	
沙浦에서	오성찬	1982.10.	현대문학	
잃어버린 시절	현기영	1983.가을	문예중앙	
지나가는 바람에	현길언	1984. 2.	소설문학	
먼 훗날	현길언	1984. 5.	현대문학	
아스팔트	현기영	1984. 9.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건만』	창작과비평사 刊
풀무에 관한 보고	오성찬	1984.10.	현대문학	
공동묘지에서	오성찬	1984.10.	제주문학 제13집	
크는 산	오성찬	1984.11.	『남도행/ 크는 산』	삼성문화문고 刊
身熱	현길언	1984.12.	현대문학	
우리들의 어머니	현길언	1985. 1.	한국문학	
핑울음소리	현길언	1985. 3.	북한	
불과 재	현길언	1985. 5.	한국문학	
死의 三角關係	곽학송	1985. 9.	현대문학	
도마칼	고시홍	1985.10.	경작지대 제1집	
겹질과 속살	현길언	1986. 봄	문예중앙	
단추와 허리띠	오성찬	1986. 7.	한국문학	原題 「단추와 고삐 허리띠」
漂海	오성찬	1986. 8.	동서문학	
덧에 치인 세월	오성찬	1986.겨울	PEN문학	
未明	현길언	1987. 4.	한국문학	
불턱	한립화	1987. 4.	『여성해방의 문화』	평민사 刊
兎山宅	오성찬	1987. 7.	한국문학	
해야 솟아라	고시홍	1987. 7.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刊
매고일지	한립화	1987. 9.	제주문학 제16집	
撫魂굿	현길언	1987.겨울	문학과비평	
당신의 작은 촛불	오경훈	1988. 2.	현대문학	
관광요정 白鹿童 문명옥의당 小傳	현길언	1988. 3.	『우리시대의 열전』	문학과비평사 刊
이만행 小傳	오성찬	1988. 4.	현대문학	

4·3소설의 전개 양상

작 품	작 가	발표 시기	발 표 지	비 고
땅울림	김석희	1988.여름	실천문학	
집없는 魂	현길언	1988. 8.	『4·3島 유채꽃』	전예원 刊
나비로의 환생	오성찬	1988. 8.	제주문학 제17집	原題「還生」
미로여행	현길언	1988.가을	불교문학	原題「여름여행」
한라구절초	오성찬	1988.겨울	실천문학	
바람의 늪	오성찬	1989. 봄.	문학과비평	
戒命의 都市	고시홍	1989. 봄.	문학과비평	
報春花 한 뿌리	오성찬	1989. 4.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刊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오성찬	1989. 4.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저승분	고시홍	1989. 5.	한국문학	
세월은 가고	오경훈	1989. 5.	경작지대 제4집	
고여있는 불	김석희	1989. 6.	『다섯 자루의 도끼』	예하 刊
유령들의 친목회	고시홍	1989.10.	제주문학 제18집	
깊은 寂寞의 끝	현길언	1989.12.	한국문학	
어떤 비밀	현길언	1990. 6.	서귀포문학 제2집	
겨울 山行	오성찬	1990.10.	제주문학 제19집	
漂流하는 세월	오성찬	1991. 2.	『우정 반세기』	창작과비평사 刊
기복한 생애	현기영	1991. 2.	『우정 반세기』	
한라산의 노을	한립화	1991. 3.	장편	한길사 刊
자서전 고쳐쓰기	고시홍	1991. 3.	『계명의 도시』	현암사 刊
여자의 강	현길언	1992. 2.	장편	한길사 刊
목마른 신들	현기영	1992. 봄	실천문학	
얼굴 없는 사람들	고시홍	1992. 7.	제주문학 제21집	
쇠와 살	현기영	1992.가을	창작과비평	
호랑가시나무 추억	오경훈	1992.11.	천주교제주교구평협회보	
비움뿜의 눈물	정순희	1992.12.	『가지치기』	책나라 刊
마지막 테우리	현기영	1994. 봄	문예중앙	
작은 모스크바	고시홍	1994. 7.	제주문학 제25집	
한라산	현길언	1995. 3.	장편(1,2부)	문학과지성사 刊
저 섬에 불던 바람	김관후	1995.가을	우리문학	
날개의 꿈	오경훈	1997.10.	장편	풍신 刊
幼年의 부활	오성찬	1998.11.	『푸른 보리밭』	새미 刊
기억의 다리	오성찬	1998.11.	『푸른 보리밭』	
섬에서 띄우는 편지	김관후	1998.12.	제주문학 제31집	
간수 박 서방	김석범	1988.5.(번역출판)	『까마귀의 죽음』	소나무 刊
까마귀의 죽음	김석범	1988. 5.(*)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김석범	1988. 5.(*)	『까마귀의 죽음』	
火山島	김석범	1988. 6.(*)	장편	실천문학사 刊
섬사람들	김일우	1988.9.(국내출판)	장편	힘 刊